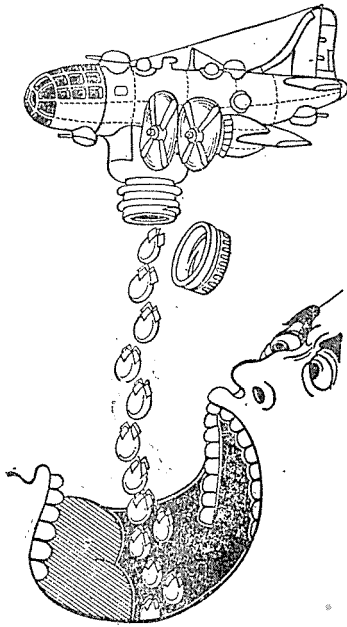


# 약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



## ■ 의사(醫師)가 사용하는 약(藥) (劇藥과 毒藥)

신문 광고를 보면 새로운 약 광고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엉터리 광고도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 약의 발달은 눈부신 바 있다 하겠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발달되어 지금까지는 극약으로 사용하던 것이 최근에는 신약으로 각광을 받아 사용되는 것이 적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약은 병에 따라 그 분량을 정확히 사용하면 신약이 되는 것이고 분량이나 용법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독성을 가져와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므로 약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은 그 사용하는데 따른 법이 있어서 의사만이 사용하는 것과 보통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약은 유효량과 증독량이 그 차이가 좁기 때문에 조금만 분량을 지나쳐도 증독을 일으켜 독약으로 될 수 있다.

예를들면 살발산, 승홍 등은 독약이고 산도닝, 아미노피린, 인슐린 등은 극약이다. 또 홀몬제와 같이 소량으로 강한 작용이 있는 것은 극약이다. 신문이나 잡지등에 광고되고 있

는 약 또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것은 그 사용 방법을 조금만 잘못해도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다.

### ■ 가정약(家庭藥)

보통약 또는 가정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고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상비약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약은 다소 사용방법이 틀려도 부작용이 크지 아니한 것들이다. 벌레나 가벼운 상처에 바르는 외용약 소화제, 영양제, 강장제, 진해제, 설사약, 수면제, 해열제, 진통제 등이 다.

그러나 가정약에도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이 있으므로 그 량을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수가 있다. 그리고 가정약도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같은 약품이라도 이름이 다를 수가 있고 약품선택에 혼란을 가져 오는 수가 있으므로 약을 선택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보통 약은 한가지에 세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화학명칭, 둘째는 공

정명칭, 셋째는 상품명이다. 예를 들면 해열제인 아스피린은 공정명칭과 상품명이고, 그 화학 명칭은 아세피루 사루진산이다. 공정명칭이 화학명칭과 같으면 상품명도 달라도 그 약은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된다.

### ■ 약을 먹는 법

약은 보통 식전, 식후 또는 식간에 먹으라고 한다. 식후라 하면 위 안에 음식이 들어 있을 때 먹으라는 것인데 약이 음식과 섞여 위의 짐막을 자극하는 것이 적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화제는 음식의 소화를 도우려는 것이므로 당연히 식후에 먹어야 할 것이고 비타민제도 식후에 먹는 것이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식후 30분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틈을 못내 먹는것을 잊어버리기 보다는 식후에 엽차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

식전에 먹는 약은 위속의 음식과 섞이지 않도록 공복(空腹)에 먹는 약이다. 식욕을 내게 하는 약이나 구충제 등은 식전에 먹어야 음식을 즐겨 당기게 하고 기생충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하루에 4회나 6회로 나

누어 먹는 약이 많아지고 있다. 또 하루에 한번이나 2번씩 먹는 약도 있다. 이들은 식사와는 관계없이 신체속에서 사용된 약의 일정량이 머물러 있도록 간격을 조정한 것이므로 지정된 시간에 먹으면 된다.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쓰고 있으면서 함부로 가정약을 사용하여 의사의 진단을 틀리게 하거나 생각지 않은 사고를 일으키는 수가 있으므로 이는 주의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내복약이라고 하면 가루약이라든가 물약이었으나 최근에는 정제라든지 캡셀에 들어있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 먹기 편하도록 당의정으로 된 것도 많고 어린이용으로 시럽제로 된 것도 있으며 입안에서 녹여 먹도록 된 것도 있다.

가정 상비약

약 제	용 도
1. 해열제	감기, 몸살
2. 진통제	두통, 치통, 신경통
3. 정장제	배앓이, 설사, 식중독
4. 건위제	제, 위통, 소화불량
5. 강심제	배멀미, 차멀미
6. 구충제	회충, 십이지장충(체독)
7. 소독약	벌레물린데, 상처, 변소청소
8. 반창고	외상
9. 강장제	영양보충(비타민, 홀몬등)
10. 항생제 연고	화농예방, 피부병, 눈, 귀 코병

### ■ 약을 복용할 때 주의 사항

일반적으로 사람은 연령이나 체질, 성별, 영양상태 등에 따라 각자 다르므로 약을 사용할 때도 그 양이 달라야 한다. 어린이들은 신경이나 소화기가 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약의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노인들은 신경, 소화기외에 간장, 심장, 신장 등에 고장이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약의 부작용이나 금기사항에 주의해야 된다.

임신중의 여성은 임신 2~3개월 동안 태아형성기에 특히 주의하여 약의 부작용이 태아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임신중에 자궁수축제나 설사약을 사용하여 조산이나 유산을 일으켜서도 안된다. 그리고 젖을 먹고 있는 어머니들은 독약이나 극약을 사용하여 어린이를 중독시키는 어린이석음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보통 성인 남자를 표준으로 하여 어린이나 노인의 약용량을 살펴보기로 하자. 어린이는 12세일때 성인의 1/2, 6세면 1/3, 4세면 1/4을 취하는데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하고 있다.

$$\text{소아약용량} = \frac{\text{대인}}{\text{약용량}} \times \frac{\text{연령}}{12 + \text{연령}}$$

그리고 노인은 성인남자 표준량의 2/3 또는 4/5를 성별에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다.

### ■ 약물부작용

약물은 그 약리적 효과와 병행하여 심리적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으나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 (1) 급성 독성

약에 따라서는 사용범위 내에서도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위장장애가 있거나 그밖에 두통, 졸음, 귀울림, 난청 및 신경장애가 잘 나타난다. 그러나 약의 사용이 중독량에 이르면 급성독성을 일으킨다.

#### (2) 만성 독성

어떤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나타나 는 독성인데 혈액, 간장, 신장, 시력 청력, 정신 등에 장애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사리드마이드에 의한 기형아 출산같은 것이다.

#### (3) 2차 부작용

약을 계속 사용하는 가운데 병자나 병원체에 변화를 일으켜 다른병을 발

생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신피질 홀몬을 합부로 사용하여 신체저항력을 약화시킨 때문에 결핵이 재발하는 경우 같은 것이다.

#### (4) 약물아레르기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적은 약물에도 일으킬 수 있는 항체반응(抗體反應)이다. 예를 들어 페니실린 쇼크 같은 것이다. 그리고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난청도 있다.

#### (5) 금기(禁忌)

환자가 특정 질병 또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소화기궤양환자에게는 부신피질 홀몬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다.

### ■ 약의 종류

합리적인 약이란 그약이 인체에 얼마나 활동적 기능을 작용시키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1806년 독일 약제사가 아편에서 몰핀을 뽑아내 마취 작용에 활용하기 시작하더니 20세기에 들어와서 살발산(1910)을 비롯하여 각종 화학합성약이 쏟아져 나왔다. 항균제(抗菌劑), 면역제(免疫劑), 제암제(制癌

劑), 신경차단제(神經遮斷劑), 환각제(幻覺劑), 정신신경안정제(精神神經安定劑), 혈압 강하제(血壓降下劑), 항결핵제(抗結核劑), 소화제(消化劑) 마취제(麻醉劑), 수면제(睡眠劑), 호르몬제(Hormone劑)등 각종 제제가 있다.

그리고 이들 제제마다 기능별로 수십 수백종의 약품이 우리들 앞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들을 함부로 사용해서 부작용을 얻거나 잘못 사용해서 신체의 기능을 손상시켜서도 안될 것이다.

약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위해 몇 가지 약품의 기능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화제(消化劑)

- 탄수화물 소화효소제...아밀라제(디아스타제)
- 단백질 소화효소제...펩신, 트립신, 파라인
- 지방분 소화효소제...리파제
- 종합 소화효소제...판크레아틴

제산제(制酸劑)

위액속의 펩신이나 염산을 중화 또는 제거시켜 주는 약(소다, 수산화알루미늄)

변비약(便秘藥)

- 운동신경자극...페노발린, 비사린, 카스카라, 사그라다
- 수분흡수방해...마그네슘염류
- 연동운동촉진...DDSC (디옥틸, 소듐솔포석시네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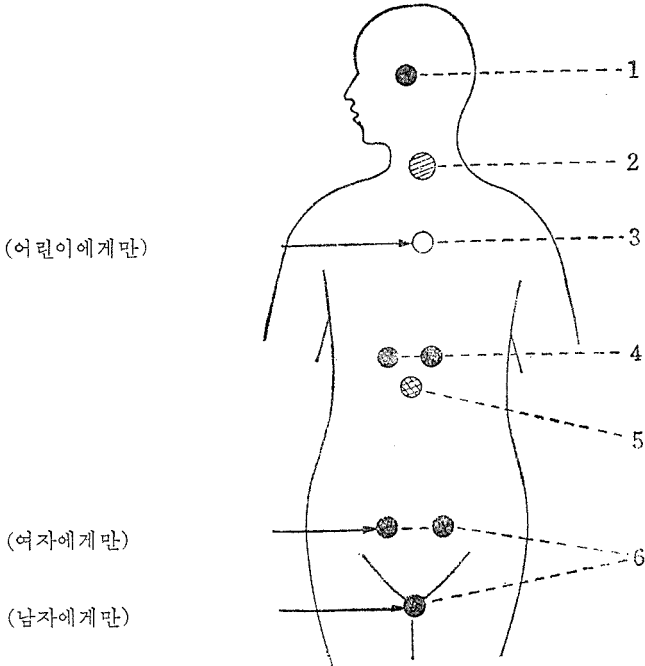
항생물질

○ 페니실린의 종류

1. 그람양성균제거(화농, 폐염, 기관지염, 임질염)...페니실린, 노보비오신, 바시트라신, 그라미시딘, 미카마이신
2. 그람음성균제거(이질, 설사, 장티브스, 식중독용)...클리스티ل, 폴리믹신, 프타디오마이신, 파라모마이신
3. 항산성균제거(결핵용)... 스트렙토마이신, 바이오마이신, 가나마이신, 카프테오마이신
4. 바이러스, 리케치아, 그람양성균제거...에리스로마이신, 로이코마이신, 오레안도마이신, 스피라마이신, 린코마이신
5. 바이러스, 리케치아, 그람음성균제거...클로람페니콜, 클로트레트라사이클린, 메타사이클린, 세팔로리딘, 겐타마이신
6. 곰팡이, 원충제거용... 트리코마이신, 나이스타틴, 그리세오폴린, 암포테리신
7. 악성종양용...사르코마이신, 마이토마이신, 크로모마이신, 블레오마이신

## <건강 상식>

다음 그림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內分泌腺)이다. 각각 번호에 알맞는 장기(臟器)의 이름을 말해 보시오.



1. 뇌하수체(腦下垂體)…성장촉진, 성적성숙에 관계있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 밖에 젖분비 근육수축, 오줌억제에 관계있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다른 내분비활동을 조절하는 통제본부역할을 한다.

2. 갑상선(甲狀腺)…대사(代謝)나 발육에 관계있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3. 흉선(胸腺)…뼈의 발육이나 임파구의 생산에 관계하고 2~3 세경에 가장 컸다가 15~16세에 퇴화해 버린다.

4. 부신(副腎)…좌우의 신장위에 있어 각종 영양의 대사(代謝)를 조절하거나 신체의 방어 기능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5. 췌장(胰臟)…소화액과 인슐린을 분비한다. 당뇨병은 이 호르몬의 활동이 나쁜데서 생긴다.

6. 성선(性腺)…성적발육, 생기능유지에 관계 있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남자는 고환(睪丸), 여자는 난소(卵巢)라 한다.